

성경해석학

제 10 강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10 강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기초(Foundations)	2
A. 중요성(Importance)	3
B. 상반되는 이상(Opposing Ideals)	7
C. 다양성(Variety)	9
III. 발전(Developments)	13
A. 중요성(Importance)	13
B. 상반되는 이상(Opposing Ideals)	15
C. 다양성(Variety)	18
IV. 적용(Application)	20
A. 중요성(Importance)	20
B. 상반되는 이상(Opposing Ideals)	22
C. 다양성(Variety)	24
V. 결론(Conclusion)	28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10 강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

(Biblical Culture & Modern Application)¹

I. 서론(INTRODUCTION)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누군가 “성경의 이 부분은 단지 문화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가 성경 시대의 고대 문화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문화적인” 성경 구절과 현대 생활에 적용되는 구절을 구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경의 부분들을 문화적인 것과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취급하는 대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성경이 고대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살든,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¹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이번 강의는 **성경해석학** 강좌의 열 번째 강의이고 그 제목은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문화적 측면이 우리가 성경을 현대 세계에 적용할 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전 강의들을 통해 설명했듯이, 성경 구절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원래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의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고려 사항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에서 현대 적용으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문화적 문제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문화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점을 따라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문화란 공동체를 특징짓는 개념과 행동과 감정이 서로 마주치는 패턴이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언어, 예술, 예배, 기술, 대인 관계, 사회적 권위 등 서로 마주치는 다양한 패턴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패턴은 공유된 개념과 행동과 감정, 즉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이 공동체, 즉 가족, 민족, 사회 단체, 종교 단체, 국가, 심지어 전 인류를 어떻게 특징짓는지를 염두에 둔다.

이번 강의는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 사이의 세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최초의 장들[창세기 1-11 장]에서 발견되는 문화의 성경적 기초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화적 발전을 추적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문화적 측면이 성경의 현대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문화의 성경적 기초를 살펴보자.

II. 기초(FOUNDATIONS)

문화의 성경적 기초를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창세기 1-11 장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창세기 1-11 장이 어떻게 문화의 중요성을 규정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창세기 1-11 장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문화적 이상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창세기 1-11 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A. 중요성(IMPORTANCE)

창세기 1-11 장은 창조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모든 세상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장들이 우리 연구에 특히 중요한 것은 세상과 인간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패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세기 1-11 장은 우리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데 지침이 된다.

문화의 기초는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1 장 28 절에 처음 등장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 1:28 개역개정)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우리는 이전 강의들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항상 그분의 가시적 영광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초기 질서를 세우신 후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준비를 위해 창조 세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마이크 글로도[Mike Glodo] 목사)²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에게 (가장 간단한 용어로 말하면) 문화 명령을 주셨다. 우리는 창조의 모습을 고대 신전과 같은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전이 지어졌을 때 그 신전을 지은 신은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² Rev. Mike Glodo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창조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온 땅이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신전에 세워두는 새의 상이나 사자의 상이나 이와 유사한 상—을 두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 남자와 여자를 두셨다. 문화 명령을 내리실 때, 사실상 하나님은 “가서 내 형상을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제사장처럼 권위를 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여 땅도 하늘의 보좌처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사야 6 장 같은 곳에서 엿볼 수 있듯이, 땅도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설계였기 때문이다.

(조나단 페닝턴[Jonathan T. Pennington] 박사)³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 장에서 바로(즉 타락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곧 일련의 지침—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탁월함을 취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성경 이야기는 타락과 문화 명령 수행의 실패를 말하고, 이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그 문화 명령이 다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문화 명령, 창조시의 그 명령, 창세기 1 장의 그 원래 규례는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는 그 문화 명령이 구원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 학자는 구원을 “다시 얻은 창조(creation regained)”라고 불렀다. 나는 이것을 아름다운 이미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³ Dr. Jonathan T. Pennington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the Director of Research Doctoral Studies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대한 아름답고 포괄적인 이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주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창조에서 새 창조로, 그분의 통치 곧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것은 이 두 개의 극(혹은 축)을 오가며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천상의 현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상의 현실로 만드시고, 시간적으로 창조에서 새 창조라는 최종 목표에 이를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메시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곧 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퍼뜨리고 계신다는 개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구속받은 인간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모든 인간의 소명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 장 26 절에서 볼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 고대 세계에서 각국의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왕의 임무가 신의 뜻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왕적 문화 봉사를 수행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창세기 2 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든 문화적 발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적 봉사라고 설명한다. 창세기 2 장 15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거룩한 동산에 두어 “일구고 지키게” 하신 사실을 알게 된다. 이 표현은 두 개의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와 [샤마르]의 특이한 조합이다. [아바드]는 대개 “일하다” 또는 “노동하다”로 번역되고 [샤마르]는 “돌보다” 또는 “보호하다”로 번역된다. 모세는 민수기 3 장 7-8 절에서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단 두 번만 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했다.

⁴ [역자 주] Milgrom, *Numbers*, 16-17; Wenham, *Numbers*, 69-70 참조. 민 3:7-8 에 묘사된 레위인의 두 가지 직무는 [샤마르 미시메레트](to keep guard)와 [아바드 아보다](to do the heavy work of dismantling, transporting, and erection of the tabernacle)이다. 전자는 성막이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at rest)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성막에 무단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보조

따라서 사실상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은 문화가 우리 존재의 사소한 차원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성경적 관점을 설정한다. 사실상 문화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봉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임무로서 50 세를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민 8:25-26 lifelong duty). 후자는 성막이 이동될 때(in transit) 성막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힘든 일로서 50 세에 끝나는 일이다(민 4:3, 23, 30[30-50 duty]; 8:24[25-50 duty]). 민 3:7-8 에 대한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보라. 영어 번역은 보조 임무에 대하여 다양한 번역이 제시되고 성막의 분해-운반-조립 임무에 대해서는 일관된 번역이 제시된다. 아래의 한글 번역들은 두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Milgrom 은 민 3:7 의 마지막 부분을 민 3:8 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중복오사(dittography)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럴 경우 민 3:7 은 성막이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앞에서 성막을 지키는 보조 임무(guard duty)를 말하고, 민 3:8 은 성막이 이동될 때 성막의 기구들을 맡아 보살피며 분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임무(hard labor of dismantling, transporting, and reassembling; removal labor)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T:

וְשָׂמוּ אֶת־מִשְׁמָרְתּוֹ וְאֶת־מִשְׁמֶרֶת כָּל־הָעֵדָה לִפְנֵי אֶהֱל מוֹעֵד לַעֲבֹד אֶת־עֲבֹדַת הַמִּשְׁכָּן׃
וְשָׂמוּ אֶת־כָּל־כְּלֵי אֶהֱל מוֹעֵד וְאֶת־מִשְׁמֶרֶת בְּנֵי יִשְׂרָאֵל לַעֲבֹד אֶת־עֲבֹדַת הַמִּשְׁכָּן׃

NIV: 7 They are to perform duties for him and for the whole community at the tent of meeting **by doing the work of the tabernacle**. 8 They are to take care of all the furnishings of the tent of meeting,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the Israelites **by doing the work of the tabernacle**.

ESV: 7 They shall keep guard over him and over the whole congregation before the tent of meeting, **as they minister at the tabernacle**. 8 They shall guard all the furnishings of the tent of meeting and keep guard over the people of Israel **as they minister at the tabernacle**.

Milgrom: 7 They shall perform duties for him and the whole community before the Tent of Meeting, **doing the work of the Tabernacle**. 8 They shall take charge of all the furnishings of the Tent of Meeting—a duty on behalf of the Israelites—**doing the work of the Tabernacle**.

개역개정: 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8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새번역: 7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8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사역: 7 그들은 그와[아론과]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 앞에서 지킬 것이고 성막을 위한 [분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8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는 일, 곧 성막을 위한 [분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가시적 영광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땅에 충만하고 질서를 세우고, 땅을 개발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브루스 보거스[Bruce Baugus] 박사)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구조적 구성 요소가 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기능적 요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명령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에 거주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형상, 곧 인간의 형태로 독특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제, 곧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추구해 온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다룰 것이다.

B. 상반되는 이상(OPPOSING IDEALS)

우리가 세계의 여러 지역을 여행할 때,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옳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에서 달리거나,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종류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초반부의 장들은 문화가 결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히려, 모든 문화의 모든 발전은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 중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다.

⁵ **Dr. Bruce Baugus** is Associate Professor of Philosophy and Theology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문화가 두 가지 기본 범주, 즉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패턴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패턴 중 하나에 속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오늘날 성경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구분이 창세기의 초반부의 장들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해보자.

창세기 3 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 시험에 실패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 장 15 절에서 뱀에게 말씀하시며 이 두 가지 문화적 추구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들어보라.

(창 3:15 개역개정)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여자인 하와이고 뱀은 사탄이다.

이 구절은 역사를 통틀어 인간 문화를 특징짓는 구분을 확립한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 구분은 하와의 위대한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에 대한 최종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 문화를 특징지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길은 창세기 4 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바로 나타난다. 창세기 4 장의 끝 부분에서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다. 그들은 고도로 정교한 문화를 형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의 자연적 조상을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마귀와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창세기 5 장에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문화를 발전시킨 셋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들은 가족들과 부족들을 형성했다. 그들은

종교적 관습과 언어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문화적 패턴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시점부터 성경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을 계속해서 구별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인간 문화의 길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창세기 4 장과 5 장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자연을 정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은 둘 다 사회와 종교적 관습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셋과 가인의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계보 모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

어떻게 그토록 상이한 문화적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토록 유사한 문화 표현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유사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즉 인류를 향한 그분의 비구원적인 자비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죄악된 성향을 억제한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문화조차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죄는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타락시킨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문화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의 문화적 노력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문화적 노력 사이에는 항상 차이점과 유사점이 존재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두 가지 상반되는 이상의 확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문제, 곧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에 나오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다룰 것이다.

C. 다양성(VARIETY)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은 주로 소수의 개별 인간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개별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써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셨다.

문화적 다양성의 기초를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는 "특별 계시"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반 계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꿈, 환상, 선지자, 성경 및 기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선택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초반부 장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반면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 즉 사람들(인간의 성격,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 기타 자질)과 환경들(외부의 관찰 가능한 세상)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시편 19 편과 로마서 1 장 18-20 절과 같은 구절에서 이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가운데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특별 계시에 대하여 심지어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순종한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 장 28 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문화 명령에 대한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른 재능, 성격, 신체적 능력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서로 다른 개인적 상황에 대처했다. 그들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문화 명령에 대한 특별 계시를 동일한 시기에 그들의 삶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했다.

게다가, 관련된 사람들과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동일한 특별 계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 처음 문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죄는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후 그들과 그들의 환경은 변했고, 그 결과 그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도 변했다. 사실 창세기

3 장의 특별 계시는 시간이 흐르고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고통과 헛고생이 문화 명령의 성취를 어떻게 복잡하게 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 계시를 하나씩 추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류의 다양성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새로운 특별 계시가 주어질 때마다 이전 특별 계시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는 수정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특별 계시를 주실 때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은 같은 시기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을 섬기는 방식을 바꾸어 반응해야 했다.

처음부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초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온갖 종류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초기의 다양성은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의 기초를 놓았다.

(지미 아간[Jimmy Agan] 박사)⁶ 창세기의 문화 명령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것을 요구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가?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도하셨는가? 나는 성경이 이에 대해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요구하신 일의 결과이다. 그분은 다양성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마른 땅뿐 아니라 바다도 있다.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별도 있다. 새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물도 있다. 그리고 인간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모든 피조물 전체에 걸쳐 확장시킬 때, 분명히 우리는 그런 종류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그것은 다른 문화적 관습과 사물에서 나타날

⁶ **Dr. Jimmy Agan**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Director of Homiletics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기후, 다양한 지형과 같은 것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적도에서는 이글루를 지을 수 없고, 알래스카에서는 잔디 오두막을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류의 다양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7:9]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것의 성취이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⁷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의 아름다움의 일부는 그분이 한 문화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그리고 여러 문화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확증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의 선포는 모든 나라, 즉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성경은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이 모든 보화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독특한 힘과 은사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의 일부인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문화를 아우르는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하시는 일의 풍성함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⁷ Dr. Philip Ryken is President of Wheaton College.

성경의 문화와 그것의 현대 적용과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의 성경적 기초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일어난 성경적 문화의 발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II. 발전(DEVELOPMENTS)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발전을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문화의 기초를 살펴볼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렌즈를 통해 이러한 문화적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성경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성경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문화적 이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성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A. 중요성(IMPORTANCE)

문화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구약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모세 오경이 국가로서 이스라엘에게 기울인 아주 많은 관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문화적 발전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로 시작하는) 구약의 첫 다섯 권의 책, 곧 모세 오경 전체는 모세의 율법 언약 시대, 곧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한 국가로 모인 후에 기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여호수아서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 왕조의 언약 시대, 곧 이스라엘이 이미 완전히 발전한 국가가 된 후에 기록되었다. 이 책들은 제국의 영광을 누린 통일 왕국 시대, 흥망성쇠 하는 분열 왕국 시대, 포로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짧은 회복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인도하신 일련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다룬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많은 문화적 발전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문화적 발전은 구약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어났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기독교 교회의 문화 패턴의 발전에 주목한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 세기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새 언약 시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전 강의를 통해 배웠듯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유대인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의 모든 역사를 “이 시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장차 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장차 올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세상의 악한 나라들과 싸우고, 그의 영광스러운 세계적인 왕국에 그의 백성들을 빠르게 세우며 이스라엘 문화를 극적이고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의 통치가 3 단계로 전개될 것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의 초림을 통해 개시되고, 교회 역사를 통해 지속되고, 그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 극치에 이를 것이다. 개시-지속-완성이란 이 3 단계 전망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자기 백성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요한계시록 11 장 15 절과 같은 구절들에 묘사된 그리스도 왕국의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놓치기 쉽다.

**(계 11: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많은 반역적인 문화가 있는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러한 악한 문화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묘사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신약 성경의 하찮은 요소가 아니다. 문화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인간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다루고 있다.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문화 명령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약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문화를 세우심으로써 극치에 이를 왕국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금까지 성경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발전을 탐구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의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B. 상반되는 이상(OPPOSING IDEALS)

창세기 3 장에서 두 가지 문화적 이상이 성립되면서 구약의 저자들은 뱀의 후손을 이방 민족들과 연관시키고 하와의 후손을 이스라엘과 연관시켰다.

이방 민족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며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들은 이러한 거짓 신들을 위해 신전과 사원을 세웠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관습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율법을 받아들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피하며, 인간의 지혜와 힘 대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존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 영입될 수 없었다고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이 될 정도로 타락할 수 없었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각자의 관습적인 이상을 따르는 정도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방 민족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와 동시에, 구약 성경과 고고학은 이스라엘 문화와 이방인 문화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러한 유사점 중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민족들의 죄악된 길을 따라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사점은 이방인의 죄악된 성향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분열은 구약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이 다시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오랜 불충성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무렵에는 신실한 유대인들만 남은 자로 있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이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영입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저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과 연관시키고 불신자들을 뱀의 후손과 연관시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 장 44 절에서 사탄을 바리새인의 아비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 16 장 20 절에서 바울이 창세기 3:15 을 암시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들의 발 아래 짓밟으실 것이라고 확신시킨 이유를 설명해 준다.

(로버트 플러머[Robert L. Plummer] 박사)⁸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흥미로운 것이다. 창세기 18 장이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다막극으로 생각한다면, 제 1 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며 주변 나라들의 부패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이 실패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메시아는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신다. 마태복음 15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마 15:24]."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온다. 그 때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은 때때로 골치 아픈 일이 된다.

⁸ **Dr. Robert L. Plummer**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사람들은 “글쎄, 그가 왜 그 여인의 딸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인가?”라고 묻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면에서 “이것은 2 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옳지 않은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왔다.” 하지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8 장에 이르면 우리가 속해 있는 3 막이 시작된다. 이 3 막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전해진다. 그런데 3 막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흥미롭게도 로마서 1 장에서 이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다[롬 1:16].”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동족들, 곧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의무를 느끼며 “나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참되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회당에서 쫓겨나가거나 그들이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바울은 즉시 이방인에게로 간다. 왜냐하면, 그가 에베소서 2 장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서 유대인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교회와 세계가 상반되는 이상을 따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자주 경고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성경에서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과 철학적 관점을 지지하기도 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이러한 유사점 중 일부는 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유사점들은 일반 은총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문화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또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발전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 곧 성경에 나타난 문화적 다양성의 발전을 다룰 것이다.

C. 다양성(VARIETY)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민족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율법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가 똑같기를 기대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충실하게 적용할 때, 다양한 문화적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성의 대부분은 동시에 일어났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공동체에서 특정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한 반면, 왕과 다른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했다. 어떤 가족은 자신의 식구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한 반면, 다른 가족은 자신의 식구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점점 더 많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특정한 문화적 패턴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는 다른 문화적 패턴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권을 세우실 때에도 그리고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실 때에도 변화를 지시하셨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문화의 변화는 포로기 동안과 포로기 이후에도 일어났다.

(존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⁹ 이스라엘 문화 생활의 일부 측면은 역사 내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부장적인 문화였다. 남편은 가정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는 잠언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가부장적이었다. 반면에 그들의 국가 생활은 다소 극적으로

⁹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변화되었다. 느슨한 씨족에서 더 긴밀하게 조직된 부족 구조로, 마침내 국가 지위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가가 멸망하고 더 큰 세계 제국 내의 한 문화에 불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정치적 상황은 그들에게 꽤 극적으로 변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의 문화적 패턴들은 여전히 적용 가능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교회, 곧 다양한 민족 문화 속에서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었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듯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이 훨씬 더 큰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시키도록 인도하셨다.

사람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의 가르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독특한 문화적 관습을 따랐다. 또한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교회들은 성경을 적용할 때 각자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다양한 족속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새 언약의 특별 계시가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 문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할례 관습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어떤 책이 기록되고 받아들여질 때마다, 여러 기독교 교회들이 변화를 겪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약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 다양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문화의 성경적 기초에 대한 탐구 그리고 성경적 발전이 성경의 문화에 영향을 준 방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 곧 이 모든 고려 사항들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적용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IV. 적용(APPLICATION)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신앙을 주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나머지 현대 문화에 대한 성경의 함의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의 문화적 차원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의 문화에 적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문화의 기초와 문화의 발전을 살펴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이 오늘날 성경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제정하신 문화적 다양성을 현대에 적용할 때 어떤 고려를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의 현대 적용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A. 중요성(IMPORTANCE)

성경의 많은 부분은 성경을 현대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것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모든 문화에 영향을 주도록 요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 장 19-20 절에서 하신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대사명(지상 명령) 또는 “복음 명령”이라고 부르는 친숙한 구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 28:19-20 개역개정)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행할 사명을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현대의 문화적 노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명령이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1 장 28 절의 문화 명령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수를 늘리라고 요구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채워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명령은 단지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마태복음 28 장 20 절에 따르면, 우리의 사명은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수반한다. 아담과 하와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문화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땅을 정복함으로써 문화를 건설해야 했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들을 제자 삼음으로써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마태복음 28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계명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대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빈곤, 재정, 건강, 결혼, 정의, 민족, 정치, 심지어 세금 납부와 같은 매우 공적인 문화적 문제를 다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이 광범위한 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 장 13-14 절에서 자기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묘사하셨다.

(마 5:13-14)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역사가 거듭 보여주듯,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는 데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문화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현대에 적용할 때 인간 문화의 모든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로버트 플러머[Robert L. Plummer] 박사) 마태복음 5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현대의 독자에게 이것은 일종의 신비로운 진술이다. ... 고대의 청중에게 특히 성경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생각해 보라. 소금은 사물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그것이 썩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에 맛을 더해 주는 것이었다.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세상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도구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로움을 위한 존재가 되어 문화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임재로 문화에 맛을 더해 준다.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 빛은 계시의 이미지를 가지며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전파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곧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이 존재하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현대에 적용할 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B. 상반되는 이상(OPPOSING IDEALS)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탄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만물을 극치에 이르게 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분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적 이상을 추구하는 불신 세상인 뱀의 후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적 이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와의 후손으로 계속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의 경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영향력과 계속 고군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죄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전히 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불신자들도 종종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 특히 복음이 큰 영향을 주었던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문화적 길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길은 피해야 할 책임이 있다. 때때로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세상과 아주 달라야 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원래의 청중에게 우상 숭배, 성적 부도덕, 이기심, 교만, 불의 및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 악에 빠지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종류의 악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성경의 저자들이 원래의 청중에게 일반 은총이 사회적 관계, 기술, 예술, 음악, 건축, 법률, 정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격려했다. 성경이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승인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유사한 영향을 찾아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과학, 예술, 정치 및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일반 은총의 복을 자유롭게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문화적 패턴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다양한 차원의 문화를 인도하신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성경이 문화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계시하는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문화 패턴을 지시하신 방식이 최소한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노동과 같은 일부 패턴은 영구적으로

승인하셨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 지파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단지 일시적으로 승인하신 패턴도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인내심으로 일부다처제나 노예제도와 같은 자기 백성의 일부 문화 활동을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용인하셨다. 물론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불의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승인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화적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발견한 문화적 패턴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성경 구절 자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평가를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다른 성경 구절에서 관련된 도덕적 기준을 찾아보고, 성경의 문화적 요소 배후에 있는 동기와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 구절의 문화적 패턴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적절한 문화 패턴을 현대 세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의 현대 적용을 문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살펴보고 오늘날 세상의 상반되는 문화적 이상들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고려 사항, 곧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C. 다양성(VARIETY)

세계 각지에 있는 다양한 신자들을 방문할 때, 우리의 언어, 옷차림, 식단, 음악 및 기타 여러 문화적 패턴이 그들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성경의 표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왜 우리 문화의 패턴이 그토록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차이점 중 일부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 충실한 방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는 별개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문화적 다양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언약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2 천 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점점 더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점점 더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 도전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어떤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곳이 있지만, 이 문제를 탐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고린도전서 9 장 19-23 절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전 9:19-23 개역개정)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자신의 헌신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개념과 행동과 감정을 포용하도록 이끌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고린도전서 9 장 22 에서 그것을 요약하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바울은 문화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했다. 고린도전서 9 장 20 절에서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 장 21 절에서 그는 이방인 공동체에 있을 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울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문화적 다양성에 어떤 제한을 두었는지 주목하라. 고린도전서 9 장 20 절에서 그는 “(비록 내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의 문화적 패턴을 따랐지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바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 장에서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행동은 정죄와 죽음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문화 기준을 수용함이 없이 그 문화를 수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9장 21 절에서 그는 "(비록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바울은 이방인 공동체의 문화적 개념과 행동과 감정을 공유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백성을 위해 해석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유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다르게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 교회, 기독교 기업, 학교, 병원, 심지어 친구 관계도 서로 다를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과 환경들이 바뀌면 당연히 이들 공동체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매개 변수(기준 척도) 안에 머무르기 위해 확고하게 헌신해야 한다. 성경을 우리 공동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성경에 충실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현대 적용의 가장 복잡한 측면이다.

(스티븐 웰룸[Stephen J. Wellum] 박사)¹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닌 영광의 일부이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다양한 문화,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화적 다양성은 역사의 특정

¹⁰ **Dr. Stephen J. Wellum** is Professor of Christian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장소 그리고 문화와 배경의 특정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다양성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우선 우리가 어떤 도덕적 요구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도덕적 기준과 그에 따른 실천 사항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 우상 숭배를 반영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표준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동체는 특정한 문화적 패턴을 유지했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문화의 패턴을 얼마나 충실하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문화적 특징이 성경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대, 사람 또는 상황에 맞추어 변경되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만약 성경에서 문화적 패턴이 바뀌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어떤 문화의 양상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0 년 동안 가족 구조와 생활 환경은 변화했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법 제도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증언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정직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 정치 제도, 의복, 음악, 음식 선호도 등 문화의 여러 측면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변화했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는 지시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문화적 패턴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마다 이러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성경 문화와 현대 적용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탐구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최초의 장들[창세기 1-11 장]을 통해 문화의 성경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문화에서 일어난 성경적 발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측면들이 성경을 현대에 적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개인으로서 그들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문화적 차원에도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새 언약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 문화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아왔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현대 문화의 모든 차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워야 한다.